

기술·감성 아우른 디자인 새 패러다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한달 앞
자니브로스 참여 팝업전시관 운영
조수미·알렉사 홍보대사 위촉
이팝나무 활용 광주정신 구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선보이는 'DUB Revolution SOUND SYSTEM'.

AI 기술을 활용한 치유와 오감을 자극하는 디자인, 이팝나무 향기를 활용한 힐링 존, 신기술로 즐기는 조수미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디자인(Design)'과 '레볼루션(Revolution)'의 합성어인 '디레볼루션(d-Revolution)' 주제로 오는 9월1일 개막하는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는 기술과 감성이 어우러진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이는 축제다. 여기에 광주의 정체성과 공공성의 개념을 풀어내는 다채로운 작품이 어우러진다.

5개 본 전시와 특별전, 기념전, 국제학술행사, 온라인 마켓, 체험프로그램 및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 올해 행사를 위해 김현선 총감독 등 35명의 기획자들은 행사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폴란드, 이탈리아 등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518명의 작가와 국내외 기업이 총 690여종의 아이템을 선보인다.

주최측은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한 자니브로스(ZANYBROS)가 참여한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팝업전시관을 오는 31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에서 운영하고 공식SNS계정을 통해 D-30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가 디자인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선정된 데 이어 오는 10일에는 인공지능 컨셉의 K-POP 가수 '알렉사'를 추가로 위촉, 행사를 국내·외에 적극 알릴 예정이다.

축제의 메인 행사인 주제관의 컨셉은 'd-Rev-



다-레볼루션 d-Revolution 2021.9.1-10.3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olution_그 너머'로 모두 7개의 존으로 구성돼 있다. 김현선 총감독은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해 인간을 지탱하는 5가지 감성을 자극하고 해체해 보여주기 위해 빛, 색, 향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까지 공간디자인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주제관의 테마는 광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빛'을 활용해 꾸며진다. 또 인종, 성별, 장애 등 모든 경계를 없애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공공성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환경과 자연,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는 기존의 틀을 깨며 질문을 던지는 작품을 적극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주제관은 광주가 가진 역사적 상징성의 원형과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마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디

자인한 게 특징이다. 특히 5월 광주를 상징하는 이팝나무의 향을 채취해 향기로 구현한 '투힐미' 공간은 광주의 정체성이 빛과 향을 통해 전달되는 색다른 색선으로 눈길을 끈다.

AI관도 운영된다. AI관의 컨셉은 'DNA X'로 디지털 혁명 속 AI를 통해 만들어지는 사람과 기술 간의 무한 확장성을 의미한다. '진화가 된 혁명들'이라는 주제로 준비중인 체험관은 인간이 변화하는 일상의 문제를 마주하며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지역산업관은 디자인의 형태적 구현과 실현적 형식을 광주라는 지역 특성을 통해 전달한다.

국제컨퍼런스에는 페터 잭 레드닷 회장, 카림 하비브 기아글로발디자인담당 전무,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이혜선 코웨이 대표이사 등 유명인사들이 참여해 디자인적 화두를 던지는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그밖에 코로나 19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비대면 온라인 전시관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어린이 가족문화축제 하우편7'

아시아문화전당이 매년 개최하는 '어린이 가족 문화축제 하우편(HOW FUN)7'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ACC 누리집 채널을 통해 개최된다.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하우편'은 어린이 눈높이에서 환경문제를 탐구하고 예술 감수성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주제는 '아시아의 꿈-Dream of Asia'.

구체적 프로그램은 자연친화적인 아시아를 알아보는 '아시아를 돌아보다', 현재의 환경문제를 인식하는 '아시아를 둘러보다', 미래의 환경문제 극복을 강구하는 '아시아를 바라보다' 등 3개 부문 25개가 마련돼 있다.

'아시아를 돌아보다'에선 자연과 공존해온 아시아 생활문화와 식문화를 알아보는 '뽕뽕! 아시아', '반짝반짝 쌀국수' 등을 운영한다. 또한 '아시아 속 자연을 이용한 집을 알아볼까?', '필리핀 이푸가오로 떠나요'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함께 그린(Green) 아시아' 그림그리기 대회는 온라인으



로 진행한다. '아시아를 둘러보다'에서는 환경 그래픽 작가 이태수, 김병하, 이육재 초청강연 '책으로 떠나는 랜선 여행'이 펼쳐진다. 또한 '쓰담쓰담 프로젝트'에선 건강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인 플로깅(Plogging)을 경험할 수 있다.

'아시아를 바라보다'는 미래의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모색하는 시간이다. 쓰레기를 활용해 가족과 함께 악기를 만드는 '재활용 악기는 어떤 소리일까? 궁그르하지?'와 생활 속 환경오염을 알아보는 '에코백' 공연 등도 꾸며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산강문화관 '영산강 지천 탐험대' 참가자 모집

㈜위터웨이플러스 영산강문화관은 환경·생태 교육 '영산강 지천 탐험대' (사진)를 운영한다.

'영산강 지천 탐험대'는 영산강 소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을 직접 채집해 관찰하면서 강변 생태계를 이해하고 환경 보전 마인드를 기르는 생태 탐사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오는 28일

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열린다. 28일에는 담양 가마골 생태공원을 찾아가며 ▲광주 용추계곡(9월4일) ▲광주 인곡습지(11일) ▲나주 지석천 친수공원(25일) 탐방이 이어진다.

모집인원은 초등학교 4~6학년 10명으로 영산강



문화관 구급 품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은 4일부터 선착순 접수받으며 8월 셋째 주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은 야외에서 진행한다. 문의 061-335-086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등골오싹한 책·영화로 무더운 여름 서늘하게

책들이도서관, 2~21일
'오싹오싹 도서관' 운영



책들이도서관은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오싹오싹 도서관'을 운영한다.

책들이도서관(광주시 북구 오치동)이 여름방학을 맞아 색다른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책들이도서관은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도서관에서 도강스'를 주제로 '오싹오싹 도서관'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오싹오싹 책전시', '오싹오싹 영화방', '아슬아슬 보드게임방' 등으로 구성됐다.

'오싹오싹 책전시'와 '오싹오싹 영화방'은 등골오싹한 책과 영화로 무더운 여름을 서늘하게 식혀

주기 위해 마련된 시간으로 무섭고 아찔한 책과 오싹한 영화를 만날 수 있다.

혼자해도 즐겁고 함께하면 더욱 재미난 '아슬아슬 보드게임방'은 친구, 가족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책들이도서관은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광주지부가 지난 2008년 지역민의 후원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약 5000여권의 그림책을 보유하고있으며달이월별주제도서,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전시하고 다양한 컬렉션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그림

책 원화전을 기획해 지역의 작은 갤러리 역할도 하고 있다. 다음가페 책들이도서관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266-727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관광재단 '생태관광 광주' 책자 발간

광주관광재단이 우리지역의 주요한 생태관광자원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했다.

'생태관광 광주' (사진)란 제목으로 펴낸 책자에는 광주시 소재 100여 곳의 ▲걷기 길 ▲자전거길 ▲생태힐링스팟 등 주요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교통편, 숙소, 맛집, 응급의료기관 등 광주 관광 시 꼭 필요한 여행정보들도 담겨있다.

봄의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금당산 벚꽃길과 초보자도 원만하게 오를 수 있는 무등산 당산나무길, 의로운 광주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오월민중길, 오월예술길, 오월의향길 등 다양한 코스 정보



를 비롯해 총 거리, 소요시간, 추천계절, 주변 음식점에 대한 정보까지 상세하게 수록했으며 부록으로 광주에서 꼭 가봐야 할 길 BEST 5, 운치 있는 산책길 BEST 5 지도를 곁들였다.

광주관광재단은 발간된 책자를 구청과 유관기관, 관광안내소, 전국 국립공원 등에 배부하여 광주 도심 생태 관광지를 더욱 폭넓게 소개할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